

# 한평생 그림삼매 빠진 화승

### 발굴화제 근세 불화 이끈 佛母 보응스님

10월 24일 오후 우일스님의 불화 초본전이 열리는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 74세의 한 노보살이 나타났다. 김태희보살(74). 김보살은 보응스님의 제자 일섭스님의 맥을 이은 우일스님의 불화초전시회가 열린다는 본지 제147호(7면) 기사를 읽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바로 보응스님의 속가 큰딸인 김보살은 아버지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우일스님의 불화초 하나하나를 만감이사린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김보살은 곧 동생에게도 연락, 29일 동생 김영희보살(69)이 또 전시장을 다녀갔다. 두 자매는 다음주쯤 우일스님과 직접 심봉할 계획도 잡았었다. 근세초기를 대표하는 화승 보응스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지는 김태희, 영희 두 딸과 스님의 법제자 김보영을 통해 보응스님에 대해 편린이나 소개하고자 한다.

## 금호스님 맥 이어...제자론 일섭스님 갑사·해인사·개운사등 탕화 그려 속가 두딸 미소정사에 '추모비' 계획

맥, 불모산맥 등 문중으로 계파를 나누기도 하는데 현재 화사들의 계파 정리는 제대로 안되어 있어 불교미술계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 보응 문성스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불화가 의겸스님의 제자 금호약효스님의 맥을 이은 마곡사출신 화승이다. 금호스님은 고종년간에 활동한 최고의 불모로서 그 이름을 전국에 떨쳤고 보응스님은 그의 의발을 이은 것. 보응스님의 제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탕화 인간문화재로 지정됐던 김일섭스님이다.

보응스님은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예산 대련사에서 87세를 일기로 입적했는데 화승이었음에도 입적하는 순간까지도 불만 나면 참선삼매에 드는 등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님의 만년필

서명한 막내딸 김영희보살의 전언이다. 경기도 양촌에서 1867년 태어난 스님은 어렸을때 그대로 두면 명이 짧다는 말에 마곡사로 보내져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보응스님을 곁에서 모신 이들의 말에 따르면 스님은 한번 붓을 들면 하루종일이라도 말이 없이 그림삼매에 빠져 있어 있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못 붙일 정도였다는 것.

보응스님은 고창 선운사에서 팔상탱 불사를 할때 팔상탱중 두번째인 '비탈강생상(毘盧降生相)'을 그리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이 싶달타 태자의 주행7보를 그렸을때 탕화에서 방광(放光)이 오랫동안 높게 솟아 이를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손수레에 정성껏 재물을 실어와 심한 가뭄으로 사할재정이 쪼들려 중단될 뻔 했던 선운사 탕화불사가 원만히 끝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스승에게 직접 전해 듣고 보응스님이 방광후 깨달음의 경지를 적어놓았던 노트까지 소장(수년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함)하고 있었다는 스님의 유방상화 김보영(81·강원도 미소정사)은 "보응스님은 언제나 불화에만 몰두하셨는데도 의심나는 것을 물으면 막힘없이 답을

주셨습니다. 은사스님으로 인해 <화엄경>에 입문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화엄학에 몰두하게 된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보응스님이 그린 탕화는 갑사, 해인사, 약수암, 개운사, 경국사, 표충사, 도림사 등에 남아있는데 스님은 특히 눈썹 수염 등 얼굴 표현에 뛰어나서 마치 살아있는듯 생생해 전국 사찰에서 불사를 할때는 보응스님 모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동안은 사느라고 바빠 아버지를 가슴에만 묻어놓았던 두 딸 김태희·영희 보살은 스님의 맥을 이은 우일스님의 전시회를 계기로 아버지님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강원도 미소정사에 세우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이경숙 기자



◇보응스님이 그린 '일섭탱'. 일섭 도림사에 봉안돼 있는데 각 표정들이 살아있는듯 생생하다.

## 불심시심 <106>

### 세속 먼지 씻다

一第遙指鶴山頭 (일공요지백산두) 지팡이로 가리키는 저 푸른 산마루  
中有高樓最勝遊 (중유고루최승유) 그 속의 높은 누대 가장 놀기 좋아  
水滿雙溪時九夏 (수만쌍계시구하) 물 가득한 두 시내 바로 한 여름  
風清孤閣月三秋 (풍청고각월삼추) 바람 맑은 높은 누각 달은 가을  
(풍청고각월삼추) (풍청고각월삼추)  
舍泥玄鳥簾窗入 (사니현조창단입) (합니현조창단입)  
喚友黃鶯格外留 (환우황앵格外留) (환우황앵格外留)  
終日看雲獨獨步 (종일관운독독부) (종일관운독독부)  
行裝蕭灑洗塵愁 (행裝蕭灑洗塵愁) (행裝蕭灑洗塵愁)  
(행장소쇄세세진수)

용암대사의 시이다. '용흥사 세진루의 운에 따라 짓는다(次龍興寺洗塵樓韻)'는 시이다. 높이는 솟은 누대에서 그곳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시 안에 사계절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 물이 가득하다는 이 한 말로 이미 여름의 대표적 경치를 말하였지만, 이 시에서의 시어의 묘미가 여름을 구하(九夏)라 한 것에 재미가 있다. 여름 석달이라는 구십일의 구하(九夏)는 하지만, 앞에서 가득할만(滿)자와 이 아홉구(九)자의 상성이 돌보이기 때문이다. 아홉은 수의 극치이다. 꼭 한 숫자다. 한 여름을 꼭 끼어안은 듯한 인상이다. 대구의 바람 맑다의 풍청(風淸)과 삼추(三秋)의 맞물림도 은연중에 삼의 숫자가 맑음의 정서와 고요히 어루만져 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아무튼 가을철의 대명사야 달일 수박이 없다. 달 밝은 누대라면 산들바람은 몸체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 시에 서도 이 집을 놓치지 않고 안 배시켰다. 자연은 항상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네 계절도 제 스스로 나름의 특징을 가지며, 이 네 계절에 따르는 자연들도 나름의 특징과 서로의 합수적 연관이 있다. 봄은 새의 울음에서 시작된다 하여 새로 새 봄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새라 하면 봄의 전령자와도 같은 제비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봄은 제비가 들어온다고도 한다. 여기에 처마 밑으로 집을 지으려는 제비의 진흙은 마치 그 집의 복을 쌓는 것과도 같은 훈훈함을 주게 한다. 거기에서 또 피뢰기의 울음은 놓칠 수 없는 것이 봄의 아름다움이다. 스님은 이 피뢰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난간 밖에도 머물러 놓았다. 이러한 풍경은 각기 바쁨의 징표이나, 감상에 몰입하는 이에게는 한가로운이다. 이 한가로운 행장으로 세속의 먼지를 씻으려는 스님의 참선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불교이동문학회 16회 글짓기공모 최우수상 15명

한국불교청년문화진흥회 산하 이동문학회(회장 신현숙)가 주최한 제16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작품 현상공모 입상자가 확정, 시상식은 15일 목동청년문화관에서 거행된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다. 저학년부: ▲산문부=홍서현(신정초 3) 김민지(은석초 1) 윤슬지(은석초 1) ▲동요·동시부=노재욱(양목초 3) 하성훈(은석초 3) 고학년부: ▲산문부=김용인(영도초 5) 하미이(은석초 6) 원동환(은석초 4) 성상아(광양제철남초 4) 박효민(광양제철초 4) ▲문예부=조현근(은석초 5) 배한성(유석초 4) 황세원(경인초 5) 윤수경(유석초 5) 정현우(은석초 5)

## 찬불가 가사 입상작 6편 발표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 정용우)가 공모한 제7회 찬불가요 가사 현상공모 입상작이 발표됐다. 시상식은 15일 목동청년문화회관 법당. ▲찬불가: '불이법문'(배영호) '회향의 큰 말씀'(신양호) ▲불교동요: '유치원 가사'(권종근) '법륜시계'(노정인) ▲불망가요: '울력의 노래'(정영규) '그 말씀 새기네'(이형렬)

## 통일서예인상에 이시규씨

### 제1회 통일서예대전 입상작 339점 선정



불교서예인협회(회장 진우성)와 평불협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에서 서예인의 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불자서예인에게 주어지는 통일서예인상(국회의장상)에 이시규씨(41·목정서예학원장)씨가 선정됐다.

최우수상(내무부장관상)은 목은 이색선생의 시를 예서대련으로 출품한 백종춘씨(27·매곡서예학원장)가, 우수상은 한글부문에 조주연씨, 한문부문에는 황태현씨(부산 동호여상 교사), 사군자부문에는 '목죽'을 낸 김주용씨(목정서예연구실 원장)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통일서예대전에는 한글 339점 한문 431점 등 총 865점이 출품되어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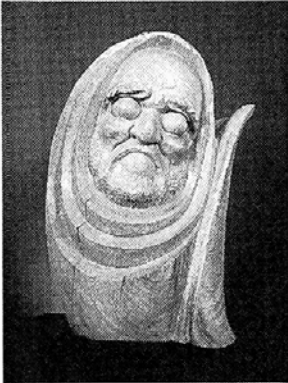


◇통일서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백종춘씨 작품. 외에 특선 53점 입선 282점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입상 작품들은 12월 15일~23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된다.

## '문화재조각회원전' 공평아트센터

### '우리 옛 돌조각의 힘' 이대 박물관

## 가을 보내는 조각전



◇제5회 문화재 기능인회원전에 나오는 김대현작 '보리달마'.



◇이회 조각정원에 전시된 조선시대 장영등 조각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노오란 은행잎이 핑구는 늦가을, 전시장을 찾아 섬세한 솜씨의 아름다운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을 마감하는 두개의 대형 조각전시회가 바쁜 도시민의 발걸음을 잠시 여유로움으로 머물게 한다.

19일부터 25일까지 관운동 공평아트센터(02-733-9512)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원전은 지정문화재 조각기능인으로 지정받은 불자장인들이 총 동원돼 그들의 뛰어난 최근 작품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박상돈 김익홍 박찬수 이진형 허길용 청원스님 이인호 김광열 이재순씨 등 70명의 기라성같은 불자장인들이 석가모니불 포대화상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미륵 등 각 불 보살상과 불감 가정불단 등을 출품, 불교조각의 다양한 멋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14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회여대 박물관(관장 김홍남 02-360-3152)이 이회조각공원 조성을 계기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여는 '우리 옛 돌조각의 힘' 특별전에서는 우리 전통 돌조각 70여점을 현대적 미감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사찰이나 능, 민가 등의 생활공간에 흠여져 있는 이룩없는 석공들의 흔과 땅이 담겨있는 돌조각들은 시간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난 조각기술로 예술화 했다. 보리사지 대경대사원기탑(보물 제351호)등 부도와 석탑 석등을 비롯 순수함과 슬기로움이 돋보이는 동자상, 마을의 이정표, 수호신 역할을 해온 장승 등 다양한 돌조각이 선보인다. <속>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일타르스님 법어집

##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르스님. 일타르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르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베풀며 살자 / IV. 밝은 삶을 여는 계을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회두 드는 법 / VII.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르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르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8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르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경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 주변의 은혜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연버구의 <지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범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신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법 법어집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상법문 테이프 육상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